흙에서 태어나 흙으로 돌아가다

1515655 컴퓨터과학부 임소희

흙은 생물체의 시작과 끝을 일평생 함께하는 동반자이다. 생물체는 흙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식물은 흙에서 태어나 흙으로 돌아가고, 흙에서 태어난 식물을 먹는 동물, 그리고 그 동물을 먹는 인간도 결국 흙으로 돌아간다. 현대 문명의 발달로, 흙을 더럽게 여겨 멀리 하는 사람들도 흙과의 연은 완전히 끊을 수 없는 것이다.

흙은 왜 모든 생물체의 근본이 되는가. 단순히 먹이사슬로 인한 관계 때문이라고 치부하기에는 흙에는 많은 생명체가 여러 관계를 이루며 산다. 여기서 생명체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생물 외에 미생물 같은 아주 작은 것들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먹이 사슬 관계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땅 속에 사는 두더지는 지렁이를 먹는다. 이 지렁이는 흙 속의 박테리아나 미생물, 식물체의 부스러기 등을 먹는다. 또 지렁이의 먹이가 되는 박테리아나 미생물 등도 눈에 보이진 않아도 서로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를 가진다. 그리고 현대 인간은 먹이사슬의 최상위에 있어 먹이를 취사선택 할 수 있다. 즉, 모든 생명체가 포식자-피식자 형태를 가진다.

위의 경우는 적대적인 관계가 되는 것이고, 또 다른 관계로는 공존 관계가 있다. 개미-진드기처럼 상호 도움을 주고 받거나,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길항작용을 한다. 예를 들어 흙 속에 두 가지 미생물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면, 항생물질을 만들어 서로를 인정하고 남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다. 흙 속 뿐 아니라, 우리 몸도 이러한 길항작용을 볼 수 있다. 우리 몸은 항상 균이 존재하고 유익균과 유해균의 세력 크기에 따라 몸의 컨디션이 좌우된다. 유익균이 우세하면 정상, 유해균이 우세하면 질병에 걸리는 형태가 그것이다.

모든 생물체는 먹이 사슬, 공존의 관계로 살아가며 죽으면 곰팡이 등에 의해 흙으로 돌아간다. 생물체의 사체는 곰팡이의 먹이가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우리 몸과 흙은 비슷한 매커니즘으로 운영된다. 매커니즘만 유사할 뿐 아니라, 흙이 관계의 시작과 끝의 순환고리 역할을 한다. 따라서 흙을 단순히 더럽고, 시대에 뒤떨어지는 유물로 여기기 보다는 한평생을 함께 살아가는 배우자처럼 여겨야 한다.